

마산마을 침수피해 예방 나선다

무주군,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동... 행안부에 16억원 요청

무주군이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310억 원(국비 155, 도비 62, 군비 93)을 들여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758-3 일원에 총 연장 6.4km에 이르는 하천정비 공사를 펼친다. 사업은 2023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연내까지 추진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제방보강 및 교량, 그리고 배수통과 배수암거를 설치해 풍수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

인다. 이를 위해 군은 25일 오해동 안전재난과장과 최성용 재난방재팀장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국비 16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 과장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주군 적상면 마산마을 일대가 해마다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려가 있다"며 "내년도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건 의했다.

하천 제방고가 낮고 폭이 협소해 재해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마산마을 일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까지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중기계획을 반영한 데 이어 올해 마산 자연재해개선지구 지정, 정부에 사업계획서제출을 마무리 하는 등 사업의 고삐를 당겨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창열 진안 부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환경부 방문 지역발전사업 추진 필요성 강력 건의

김창열 부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 부군수는 지난 24일 환경부를 방문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사업,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용담호 생명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용담읍 상류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은 용담호에

유입되는 지방하천 중 수질오염도가 높은 신전천과 정자천에 대해 효율적인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150만명 전북도민과 충남 서천 등 8개 시·군의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용담읍 상류 29개 마을에 공공하수도가 미설치돼

생활하수를 직접 방류해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급강 및 섬진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구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용담도 및 섬진강 상류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용담호 생명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용담호를 활용한 생태체험과 지역 농촌문화를 기반으로 국가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담호 주변 기존 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용담호 수원보호 및 지속가능한 생태문화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김창열 부군수는 "150만 도민 및 일부 충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와 관련된 용담호의 수질을 지키고, 용담호로 인해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진안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향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복도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며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창열 부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산소포화도 측정기 회수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완료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키트 구성품인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모든 확진자에게 지급했으나,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집중관리군 및 기저질환자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지급했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올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어 보건 의료원은 자원의 재활용 측면 및 향후 재유행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산소포화도 측정기 회수하고 있다. 보건 의료원은 재택치료가 중 집중관

리군을 대상으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회수 관련 문자 안내 및 마을 방송 실시 및 이장회보 게재를 통하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3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반납을 실시했다. 반납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산소포화도 측정기 반납 방법은 건강관리키트 내 동봉된 산소포화도 측정기 회수 봉투에 적혀 있는 택배회사 번호로 전화해 회수 요청을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전국 우수사례 선정

진안군, 민원봉사과 발굴 '주민생활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진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행안부는 규제개선 적극 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를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전문가평가단 합동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403건을 제출해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다. 우수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된 건은 '생방향 소통하는 민원발급기 개발로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제공'이다. 이는 군 민원봉사과에서 발굴한 '주민생활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일컫

는다. '주민생활통합시스템'은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AI기술이 적용된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마을과 행정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전용기기를 통해 △읍성과 문자로 각종 생활정보·복지서비스·관광정보 제공, △원격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민원신청 업무 처리, △화상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 직접 상담,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과 생활불편 사항을 신고·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진안군 전체인구 38%를 차지하는 고령층 및 시각장애인 등 IT취약계층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생기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청소년 위한 공약 발표

무소속 기호 4번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무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황 후보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선 7기부터 시행한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정기 간담회는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아이들이 경제관념을 확립하고 꿈을 키우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기본소득 실현을 제시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입학준비금을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의 시행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설계해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언급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장으로 교육분야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과 학교운영위 전문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역교육네트워크를 실행 하겠다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성영 어사들도 확대해 아이들이 놀기 좋은 작은 놀이터를 곳곳에 조성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지지 선언

민주노총 산하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이하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은 6.1 지방선거에 '무소속 기호 4번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와 함께 합니다!' 라는 모토를 갖고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25일 무주군청 앞마당에서 황인홍 후보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 한현수 정치위원장은 "황인홍 후보는 제기 무주군수 재임 시 공무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목소리에 경청해 왔다"며 "2014년 8월 노조가 설립 당시 노조사무실도 없이 고군분투하며 투쟁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함께 소통해준 후보자"라고 지지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

은 무주군민입니다. 그 희망으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정치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든 해 주겠다는 헛된 약속을 믿지 않는다"며 "선거 때만 우리를 이용하고 당선 후에는 외면하는 정치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늘 소통하고, 늘 함께하고, 늘 생각해주는 그래서 노동 존중 무주군을 위해 행동하는 황인홍 후보를 믿는다"며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 해준 황인홍! 그래서 우리는 4랑 함께 합니다! 우리는 황인홍 후보를 4랑 합니다! 기호 4번 황인홍 후보의 당선을 쟁취하자!"라는 구호와 함께 지지를 강하게 어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

무주군이 국가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전상군경유족과 공상군경유족, 무공·보국수훈자 유족 등 87명으로 다음달 16일까지 마무리한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유공자를 지역사회와 함께 예우하고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11명의 국가유공자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방역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배포

진안군은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양돈농가에게 강화된 방역시설을 돕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반영한 방역시설 설치 가이드라인과 사례별 질의응답(Q&A)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이에 따라 방역담곡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 양돈농가에서도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총사업비 4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방역시설 설치에 따른 어려움이 농가에 대해서는 1대1로 농장현장에 맞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